

나선희 졸업생

소속: 서울삼성학교

직위: 교사



Q1.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특수교사의 꿈을 준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특수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교육봉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키웠고, 과대표와 학회장,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제1대 의장단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Q2.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학년 때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며 학생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수어 공부를 이어갔고, 교육실습을 했던 학교에서 근무할 기회를 잡으면서 '청각장애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 왔습니다.



Q3. 교사가 된 이후에도 새로운 교육방법을 꾸준히 배우고 적용하고 계신데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PBL과 에듀테크를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PBL 관련 연수 강사와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강사 활동을 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과에 진학해 다양한 교육테크놀로지를 배우고 학교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Q4.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코로나19 시기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원격수업 지원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서 개발 심의와 집필에 참여하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수어 관련 앱 개발 과정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Q5. 광주여자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지금의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여대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봉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과대표와 학회장 활동을 통해 교수님과 학우들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했던 경험 역시 이후 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Q6.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 찾기보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다시 배우면서 오늘의 작은 경험을 자신만의 전문성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